종로구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3가 탑골공원에서 노인 이발 무료봉사를 하는 지세민(012-248-3744)입니다.

이번 15대 4.11총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낙선입니다.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라고 해서 항상 유권자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낙선했다고 해서 유권자로 부터 버림 받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간접민주주의는 유권자인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노릇을 톡톡히 해야 합니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관계는 항상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유권자의 사랑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혼자 뛰면 관중이 모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2명이상 경주를 해야 박진감이 있는것 입니다.

그러나 토끼와 거북이 경주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선자는 법적 권한과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낙선자는 패배와 좌절을 이겨내야 하는 힘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끼는 무거운 쇠뭉치를 메고 달리게 하고 거북이는 배에다가 바퀴를 달아 줘야 합니다. 바둑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수가 몇점 놓고 둡니다. 장기는 상수가 차, 포를 떼고 둡니다.

여러분 당선자와 낙선자에게 어떻게 해야 겠습니다. 달리는 말은 채찍을 친다고 합니다.

당선자에게는 때로는 질책도 해주셔야 더욱 열심히 하고 낙선자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격려전화, 편지 방문을 해야 합니다.

※ 격려전화 : 737-2772

※ 격려편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47 보신빌딩 5층

※ 격려방문 : 종각 맞은편 제일은행 옆

32232